

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6

‘숫자의 부재’와 한국 정신역학의 형성: 1950-1960년대 한국의 사례

The Absence of Numbers and the Formation of Psychiatric
Epidemiology in South Korea, 1950s-1960s

지현정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1950-1960년대 한국에서 정신질환 통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 주목하여, 이러한 ‘숫자의 부재’(absence of numbers)가 단순한 정신질환 데이터 결핍을 넘어 정신역학(psychiatric epidemiology)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던 역사적 조건이었음을 논의한다.

전후 한국 사회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정신질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언급되었으나, 이를 인구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과 분류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질환을 조사하고 측정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정신의학계의 선구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유석진이 1956년부터 1960년에 걸쳐 수행한 정신역학 조사였다. 유석진의 조사는 정신질환의 규모와 분포를 인구 수준에서 파악하려 했던 초기 정신역학 조사 가운데 하나였으며, 정신질환을 병원 내부의 임상 영역을 넘어 사회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본 발표는 유석진의 조사가 어떠한 사회적·지적 환경 속에서 가능해졌는지를 살펴보고, ‘숫자의 부재’가 단순한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역학적 방법과 통계 생산을 통해 새로운 전문적 지식 질서를 구축해 나가게 만든 역사적 조건이었음을 분석한다. 동시에 이러한 실천은 한국 내부의 조건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냉전기 국제 정신보건과 정신역학 담론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석진의 조사는 전후 한국의 정신역학 형성을 냉전기 국제 정신보건 지식의 이동과 지역적 수용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지현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UC Davis에서 유럽사로 학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UCLA에서 한국 정신의학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 한국사와 정신의학사, 역사사회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냉전기 정신보건 지식의 이동과 한국의 정신역학 및 정신보건 체계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일시: 2026년 5월 12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